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가:

한국인의 장기 기증(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기증) 의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 분석

김가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윤도식** 청화실업 대표

박희선***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

본 연구는 장기 기증 행동에서 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기 기증 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생각에 의해 구성된 규범과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관적 규범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모든 행동 차원에서 두 규범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포괄적 주관적 규범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기증 행동 의도에 대한 부모 규범의 직접적 영향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대해서는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들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다양한 규범 차원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5개의 규범 차원이 장기 기증 의도에 어떠한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이,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용적 함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 장기 기증, 계획된 행동 이론(TPB), 주관적 규범, 명령적 규범, 기술적 규범

* kykim@gwnu.ac.kr, 제1저자

** yundoshi@naver.com

*** heesunpark@korea.ac.kr, 교신저자

1. 들어가며

장기 기증 등록 신청자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실제 한국의 인구 백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뇌사자 기증자, per million population, p.m.p.)는 9.32명으로 미국(48.04명), 스페인(49.38명), 프랑스(27.63명) 등 서구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RODaT, 2024). 또한 장기 기증 희망자 수는 2002년 55,313명에서 2010년 122,815명으로 처음 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2023년 기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는 83,362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보건복지부, 2025), 인구 백만 명당 기증 지표도 2016년 11.1명에서 2023년 9.32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IRODaT, 2024). 따라서 장기 기증자 수가 이식 대기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010년 954명→2024년 1,514명)(보건복지부, 2025).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제도 상으로 본인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할 경우 기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장기 기증 등록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과 관련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가족이 개인의 장기 기증 행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 기증을 포함해 건강과 관련된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이론적 틀로 삼아, 태도(attitude, ATT),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PBC) 등 3가지 요인이 건강과 관련된 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금연 의도, 비만과 운동 촉진, 미세먼지 감축 행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구윤희 외, 2020; 민지원·차희원, 2017; 정재선, 2013 등), 특히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태도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규범의 경우 사회적인 압력과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Rivis & Sheeran, 2003),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 하다(민지원·차희원, 2017; 유성신 외, 2015; Armitage & Conner, 2001; Hausenblas, Carron, & Mack, 1997). 이에 대해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측정하는 규범이 너무 모호하거나 규범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

며(Park H. S., & Smith, 2007), 따라서 규범 요인을 명확하게 조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장기 기증 서약에 있어서 자신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Yun, D., & Park, H. S., 2010), 규범 요인을 제대로 측정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규범 요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실제로 나와 가장 가까우며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행위의 특성에 따라 그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준거 집단(referent group)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각하는 규범을 전체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 포괄해 측정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장기 기증의 경우 생명, 신체 훼손 등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로 가족, 그 중에서도 부모가 개인 규범을 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준거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측정하는 포괄적 의미의 규범과 부모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규범 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규범 요인의 설명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생각으로부터 형성된 규범들과 포괄적 준거그룹으로부터 형성된 규범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 데에 부모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장기 기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관적 규범 요인과 구분되는 설명력을 갖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관적 규범 요인을 사회 규범적 접근(social norm approach, SNA)으로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범을 측정하고자 한다. 박과 스미스(Park H. S., & Smith, 2007)가 제시한 5개의 규범 차원(주관적 규범, 개인적 기술 규범, 개인적 명령 규범, 사회적 기술 규범, 사회적 명령 규범)이 각각 장기 기증 의도에 어떠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각 규범 차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을 통해 장기 기증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규범의 설명력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장기 기증(Organ Donation in Korea)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개인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하는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¹⁾, 실제 서약 및 기증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식이 필요한 장기 의 공급 부족으로 많은 장기 이식 대기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험에 놓이는 상황을 고려하면,²⁾ 장기 기증 서약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기증 등록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사후 장기 기증뿐 아니라, 장기 기증 서약, 가족과의 대화 등 장기 기증 행위에 구별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을 함께 고려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국인의 장기 기증 서약이 서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마 문화적인 요인일 것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교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브라운과 니콜스(Braun & Nichols, 1996)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장기 기증 서약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문화적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장기 기증 제도를 인지(96.5%)하고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60.1%)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 신체 훼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48.9%)’을 꼽았다(보건복지부, 2021).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공포가 유교적 문화권의 문화적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강경자·김상희, 2004; 왕혜숙·양현아, 2016; 이상목, 2005; 이수인·유지영·임연옥, 2019; 조광덕, 2017). 이는 유교의 핵심 사상인 ‘효’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장기 기증에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재천, 2008). 이는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장기 기증 의도에 가족 중심적이라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왕혜숙·양현아, 2016).

1) 한국의 경우 60%의 국민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

2)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0년 954명→2019년 2,136명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2025). 또한 하루 평균 5.8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2021).

문화적인 요인뿐 아니라 제도 상으로도 한국에서 개인의 장기 기증에 가족이 갖는 영향력은 실제로 크다.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사망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던 경우 그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본인이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했더라도 뇌사 상태일 때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조원현, 2018).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호자 동의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6년 52.7%였던 동의율이 2020년에는 36.1%, 2023년에는 31.4%까지 떨어졌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4; 보건복지부, 2021). 그렇다면 실제 장기 기증에는 개인의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나 의도뿐 아니라, 가족이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의 생각이 개인의 장기 기증 및 장기 기증 서약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가족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증 서약과 함께 장기 기증에 핵심적인 두 가지 행위로서 설명해 왔다(Park, H. S., Smith, 2007; Park, H. S., Smith, & Yun, D., 2009; Park, H. S., Yun, D., Oh, J. Y., & Song, C.-I., 2015; Yun, D., & Park, H. S., 2010). 박과 그의 동료들(Park, H. S., Smith, & Yun, D., 2009)은 한국인에게서 지각된 행동 통제(PBC)가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는 가족과 장기 기증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각된 행동 통제가 낮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대화하기를 더 어려워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에 대해 가족과 대화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Park, H. S. et al., 2010), 장기 기증 서약 의도뿐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 의도를 높이는 것 또한 개인의 장기 기증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집합주의적 특성상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데 규범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박과 그의 동료들(Park, H. S., Yun, D., Oh, J. Y., & Song, C.-I., 2015)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장기 기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 비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쪽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밝혔다. 즉 장기 기증 서약은 하고자 하지만 가족과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한다는 것이다(Park, H. S., Yun, D., Oh, J. Y., & Song, C.-I., 2015). 이는 한국인들이 장기 기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를 보는 규범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사실 규범에서 묻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즉 준거그룹은 분석하고자 하는 행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장기 기증과 같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행동에는 부모가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장기 기증과 같은 민감한 선택에서는, 부모의 태도와 가치가 개인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고 있다(Luberda, 2017; Rodrigue et al., 2006). 예를 들어, 로드리그 등(Rodrigue et al., 2006)은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있어 동료, 친구보다 부모가 기증에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경우 성인의 기증 의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부모로부터 형성된 생명관·신체관·도덕적 가치가 성인기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Martínez-Escudero et al., 2020)는 장기 기증 맥락에서 부모가 청소년이나 20대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30, 40대 성인에게도 중요한 규범적 준거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장기 기증은 일상적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도덕적 판단이 함께 고려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과거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가치나 현재 부모의 입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장기 기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부모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중요성이 다르게 반영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측정하는 주관적 규범이 개인의 의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 즉 부모로부터 나온 규범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은 현실적인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포괄적인 준거 집단의 생각을 규범으로 간주하고 적용해 왔다. 문제는 포괄적인 준거 집단의 생각이 자신에게 영향력이 큰 부모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이렇게 측정된 규범 요인이 행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규범들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 사이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규범을 실제 장기 기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적 규범은 크게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으로 구분된다.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느끼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Ajzen, 1991), 계획된 행동 이론(TPB)에서 규범적 영향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반면 기술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타인의 행동 관찰을 기반

으로 형성되는 규범적 정보이며(Cialdini et al., 1991), 명령적 규범은 타인이 특정 행동을 승인하거나 비난하는 정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Rivis & Sheeran, 2003). 이때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은 준거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다시 개인 차원의 규범과 사회 차원의 규범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ersonal descriptive norm, PDN)은 특정 준거집단 구성원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며,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ersonal injunctive norm, PIN)은 특정 준거집단 구성원이 해당 행동을 승인하거나 반대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준거집단의 행동과 생각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이라면, 그 준거 집단이 부모일 경우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ersonal descriptive norm from parents, 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ersonal injunctive norm from parents, PIN_p)이 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행동 및 태도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두 가지 주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첫째, 규범은 특정 준거집단의 태도나 기대를 개인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기준으로 내면화함으로써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ivis & Sheeran, 2003; Cialdini et al., 1991). 예를 들어 기술적 규범은 “타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행동의 빈도와 사회적 허용 가능성을 학습하도록 만들며, 명령적 규범은 준거집단의 승인·비승인 기대를 통해 도덕적·사회적 압력을 생성함으로써 행동 의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Park & Smith, 2007). 둘째, 규범적 사고는 사회화(socialization)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적 틀에 의해 구조화되는데, 특히 부모와 같은 주요 준거집단은 개인이 규범을 해석·판단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핵심적 원천으로 제시되어 왔다(Grusec & Hastings, 2015; Rodrigue et al.,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규범의 영향은 단순한 신념 공유를 넘어, 개인이 규범적 판단을 구성하는 인지적 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은 현재 준거집단의 행동·기대에 대한 인식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규범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틀을 형성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은 규범적 압력의 직접적 효과와 사회화 경험을 통한 인지적 틀 형성이라는 두 수준의 영향이 중첩되는 영역으로, 개인의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1) 개인이 지각하는 포괄적 주관적 규범(SN), (2) 개인 차원의 기술적·명령적 규범(PDN, PIN), (3) 부모로부터의 주관적·기술

적·명령적 규범(SN_p, PDN_p, PIN_p) 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개인이 지니는 포괄적인 형태의 주관적 규범(SN),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 과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from parents, 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개인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등의 생각을 모두 조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직접 조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모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부모의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이 때 부모가 당사자에 대해 장기 기증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이 되며,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 부모 자신의 장기 기증 서약 의도는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이 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 기증 행동은 사후 장기 기증이라는 단일 행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심리적 과정과 결정을 요구하는 여러 단계적 행동으로 이루어진다(Park & Smith, 2007). 박과 스미스(Park & Smith, 2007)는 장기 기증 행동을 장기 기증 서약(signing), 가족과의 대화(talking), 사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 라는 세 가지 핵심 행위로 구조화하였으며, 이들 행위는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며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장기기증 서약(signing)은 개인이 생전 등록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초기 단계의 행동으로, 인지된 규범과 태도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Park & Smith, 2007). 서약은 실제 기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 기증 의사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가족과의 대화(talking)는 사후 장기 기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 요인이다. 많은 국가에서 사후 장기 기증은 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Rodrigue et al., 2006), 생전 가족과의 대화는 독립적인 행동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또한 박과 스미스(Park & Smith, 2007)는 서약과 가족 대화가 서로 다른 예측 요인을 가진다고 강조하며, 특히 가족과의 대화는 사회적 규범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로부터의 규범(SN_p, PIN_p, PDN_p)은 장기 기증과 관련한 가족과의 대화 경험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상호작용, 가치관 공유, 생활 속 행동 관찰 등의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는 부모 규범의 선행요인이 아니라 장기 기증 행동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은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는 최종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며, 서약이나 가족 대화와는 구분되는 행동적 수준을 반영한다. 사후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약이나 가족과의 대화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동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기 독립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 기증 행동을 서약 - 대화 - 사후기증 의도라는 세 가지 종속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1-1: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 개인적 규범들(SN, PDN, PIN)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DN_p, PIN_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1-2: 장기 기증에 관한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서, 개인적 규범들(SN, PDN, PINT)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DN_p, PIN_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1-3: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 개인적 규범들(SN, PDN, PIN)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DN_p, PIN_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2)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계획된 행동 이론(TPB)은 장기 기증 연구뿐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행동 의사 및 행동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이론이다. 많은 학자들이 계획된 행동 이론, 합리적 행위 이론, 사회 규범적 접근과 같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장기 기증뿐 아니라 금연, 금주, 식습관 개선, 운동 등 건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합리적 행위 이론(Ajzen & Fishbein, 1975)은 사람들의 행위가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attitude)와 다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보여주는 규범적 인식(normative percep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특정 행위에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합리적 행위 이론은 비합리적이고 비자발적인(non-volitional) 행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Ajzen, 1985). 이에 에이젠(Ajzen, 1985)은 이를 발전시킨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3개의 개념적 요인을 가정하는데, 태도(ATT), 주관적 규범(SN), 지각된 행동 통제(PBC)가 그것이다(Ajzen, 1991). 여기서 태도(ATT)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개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적 신념을 의미하며, 해당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전반적 호감 또는 반감 수준을 반영한다(Ajzen, 1991). 주관적 규범(SN)은 특정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사회적 압

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며, 지각된 행동 통제(PBC)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능력, 혹은 기회가 본인에게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Ajzen, 1991). 일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나타날수록,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행동 의도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Ajzen, 1991).

국내에서도 계획된 행동 이론을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구윤희와 그의 동료들(2020)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해 검증했는데, 3가지 요인 중 태도와 지각된 자기 통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주관적 규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정재선(2013)은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확장해 검증했는데, 건강에 대한 태도와 주위의 금연 기대에 대한 인식이 금연 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민지원과 차희원(2017)은 여대생들의 산부인과 방문 의도를 계획된 행동 이론에 정서적 차원과 사회 규범적 차원을 추가해 검증했는데,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 중 지각된 행동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산부인과 방문 의도가 증가됨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회 규범적 차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민지원·차희원, 2017). 차동필(2010)은 지각된 행동 통제와 호환 가능한 개념인 자아 효능감이 장기 기증 서약과 가족 동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혜인과 차희원(2010)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요소를 매개해 장기 기증 서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는데, 연구 결과 주관적 규범과 태도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신 등(2015)은 3가지 요인 외 이슈 관련도와 인구학적 요인을 추가해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했는데,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자기 효능감)가 서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규범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이 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설명하는 데 계획된 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 대부분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요인 외에 새로운 변인(사회자본, 정서적 요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슈 관련성 등)을 추가해 이론을 확장하거나 특정 변인을 제외한 수정된 이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손영곤과 이병관(2012)은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특히 행동 의도에 대한 효과 크기가 외국과 대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변인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요인 중 태도는 다수의 연구에서 행위 의도와 비교적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예: Skowronski, 1997),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규범적인 요인이 장기 기증 행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e.g., Kopfman & Smith, 1996; Morgan, 2004), 다수의 연구들은 주관적 규범이 장기 기증 등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논문들의 메타분석에서 주관적 규범과 행위 의도와의 관계가 태도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Armitage & Conner, 2001; Hausenblas, Carron, & Mack, 1997). 또한, 앞에서 제시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도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예. 민지원·차희원, 2017; 유성신 외, 2015; 정재선, 2013; 차동필 2013). 즉 주관적 규범은 행위 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관적 규범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규범이나 사회 심리적 변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장기 기증 행위의 경우 가족의 영향력이 특히 크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의 계획된 행동 이론 변인인 주관적 규범(SN) 외에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기술 규범(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명령 규범(PIN_p)을 추가해 각각이 갖는 직·간접적인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변인들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태도, 지각된 자기 통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관적 규범 요인과 구분되는 설명력을 갖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획된 행동 이론(TPB)의 변인 중 주관적 규범(SN)은 선행 연구에서 일관된 예측력을 보이지 않으며, 세분화된 사회적 규범(SN, PIN, PDN, SIN, SDN) 역시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부모로부터의 규범(SN_p, PIN_p, PDN_p)은 기존 문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임을 고려할 때, 특정 방향성을 전제한 가설을 설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규범 차원이 한국적 맥락에서 장기 기증 행동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2-1 :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은 장기 기증 서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2-2 :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은 가족 간의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2-3 :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은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3-1 :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3-2 :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서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3-3 :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대해서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IN_p, PDN_p)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3) 사회 규범적 접근(Social Norm Approach, SNA)

다음으로 규범 차원을 세분화 해 어떠한 차원의 규범이 장기 기증 행위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 규범적 접근(social norm approach, 이하 SNA)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회 규범적 접근(SNA)은 Park & Smith(2007)가 제시한 명령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의 구분에 기반한 것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다양한 규범적 정보가 행동 의도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리비스와 시란(Rivis & Sheeran, 2003)은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명령적 규범(injunctive norm, 집단에서 승인하고 장려하는 행동)과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 집단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TPB의 주관적 규범은 인지된 사회적 압력, 즉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 데 대해 개인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령적 규범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Rivis & Sheeran, 2003). 반면 기술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인식을 나타냄으로 이를 분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규범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과 스미스(Park, H. S. & Smith, 2007)는 규범의 차원을 SNA를 적용해 더욱 세분화하고 각각의 규범 차원이 장기 기증 서약 및 가족과의 대화 행위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TPB에서 제시한 주관적 규범에 명령적, 기술적 규범을 추가

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총 5개의 규범 차원을 제시했는데(Park, H. S., & Smith, 2007), 이는 주관적 규범(SN, subjective norm),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 personal injunctive norm),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 personal descriptive norm),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 societal injunctive norm), 사회 차원의 기술적 규범(SDN, societal descriptive norm)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은 내 주변 사람들이 승인, 장려하는 행동으로,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은 내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은 사회에서 승인, 장려하는 행동으로, 사회 차원의 기술적 규범(SDN)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장기 기증 서약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 의도 간의 관계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에 의해,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는 주관적 규범(SN)에 의해 조절(moderate)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H. S., & Smith, 2007).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규범을 세분화해 실제 개인들이 인지하는 규범 중 어떠한 차원의 규범이 장기 기증 서약,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그 중에서도 한국 직장인들의 맥락에서 어떠한 규범 차원이 장기 기증 관련 행동 의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미국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Park & Smith, 2007)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장기 기증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연구질문 4-1 : 다섯 가지 종류의 규범들(SN, PDN, PIN, SDN, SIN)은 장기 기증 서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4-2 : 다섯 가지 종류의 규범들(SN, PDN, PIN, SDN, SIN)은 가족 간의 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4-3 : 다섯 가지 종류의 규범들(SN, PDN, PIN, SDN, SIN)은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질문 5-1 :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규범들(PDN, PIN, SDN, SIN)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5-2 :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규범들(PDN, PIN, SDN, SIN)

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연구질문 5-3 :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규범들(PDN, PIN, SDN, SIN) 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ATT, SN, PBC) 간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가?

3. 연구 방법

1) 참가자

본 연구는 국내 14개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21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 81명(37.2%), 여성 137명(62.8%), 성별 미표시 10명(4.6%) 이었다. 연령대는 30대 161명(73.9%), 40대 57명(26.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30 - 34세 58명 (26.6%), 35 - 39세 103명(47.3%), 40 - 44세 48명(22.0%), 45 - 49세 9명(4.1%) 이었다. 참가자의 혼인 여부는 기혼 136명 (62.6%), 미혼 82명(37.4%)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 참가자들의 49.5%(108명)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50.5% (110명)은 동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참가자의 응답을 기준으로 한 참가자 부모의 평균 연령은 64.2세였으며, 50대 50명(23%), 60대 157명(72%), 70대 이상 11명(5%)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 의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보완해 본 연구는 30, 40대 직장인들의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했다. 이들은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세대로 이들의 장기 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 총 19만 8,369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했을 때, 20대가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30대는 15%, 40대는 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강승지, 2023).

2) 측정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은 <Table 1>과 같다. 먼저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변

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에이젠(Ajzen, 1991)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측정했다. 태도는 장기 기증 서약(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대화,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지각된 행동 통제는 장기기증(서약, 대화, 기증)이 얼마나 쉬운지로 측정했다. 에이젠(Ajzen, 2006)은 TPB의 3가지 요인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SNA의 규범 변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 직접적 측정을 적용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의 구체적 변인들은 박과 스미스(Park, H. S., & Smith, 2007)를 참고해 측정했다.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은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했다.’,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은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장기 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사회 차원의 기술적 규범(SDN)은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장기 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했다.’,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은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사람들은 장기 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하는 것을 찬성한다.’의 문항으로 각각 측정했다.

이어서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규범들을 각각 측정한 뒤 평균값을 적용해 단일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부모 두 사람의 입장을 동일하게 지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장기 기증에 긍정적이고 어머니는 부정적인 경우 ‘부모의 규범’에 대해 단일하게 응답하는 데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모를 분리해 측정한 뒤, 분석에서는 부모 전반의 규범적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실제로 부모로부터의 규범은 자녀에게 통합된 준거틀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항목 간 신뢰도 검증 결과도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단일 구성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은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NS_p)’(Cronbach’s $\alpha = .93$),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가족들과 장기 기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NT_p)’(Cronbach’s $\alpha = .95$),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사후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NO_p)’(Cronbach’s $\alpha = .93$)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은 ‘아버지/어머니는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을 했습니다(PDNS_p)’(Cronbach’s $\alpha = 0.63$), ‘아버지/어머니는 장기 기증에 대해 가

<Table 1> Variables and Items

| 구분 | 측정 변인 | 측정 문항(item) | M (SD) |
|----------------------|---|--|---|
| 계획된 행동이론 (TPB) | 행동 의도 (BI: BIS, BIT, BIO) | 가까운 시일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대화, 기증)할 예정이다. | BIS: 3.56 (1.61) BIT: 3.44 (1.54) BIO: 4.04 (1.84) |
| | 태도 (A: AS, AT, AO) | 장기기증 서약(대화, 기증)은 매우 나쁘다-매우 좋다. | AS: 5.22 (1.38) AT: 5.13 (1.53) AO: 5.38 (1.44) |
| | 주관적 규범 (SN: SNS, SNT, SNO) |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대화,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SNS: 2.92 (1.40) SNT: 3.21 (1.48) SNO: 2.81 (1.49) |
| | 지각된 행동 통제 (PBC: PBCS, PBCT, PBCO) |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는 것(대화, 기증)은 쉽다. | PBCS: 3.17 (1.53) PBCT: 3.34 (1.49) PBCO: 3.35 (1.75) |
| 부모로부터의 규범 | 아버지/어머니로부터의 주관적 규범 (SN_p: SNS_p, SNT_p, SNO_p) |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대화,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SNS_p: 2.76 (1.36) SNT_p: 3.19 (1.54) SNO_p: 2.78 (1.46) |
| | 아버지/어머니로부터의 개인적 기술적 규범 (PDN_p: PDNS_p, PDNT_p, PDNO_p) | 아버지/어머니는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대화, 기증)을 했다. | PDNS_p: 0.03 (0.13) PDNT_p: 0.19 (0.36) PDNO_p: 0.10 (0.26) |
| | 아버지/어머니로부터의 개인적 명령적 규범 (PIN_p: PINS_p, PINT_p, PINO_p) | 아버지/어머니는 사람들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는 것(대화, 기증)을 찬성한다. | PINS_p: 3.39 (1.62) PINT_p: 3.61 (1.67) PINO_p: 3.45 (1.65) |
| 사회적 규범 (SNA) | 개인차원의 기술적 규범 (PDN: PDNS, PDNT, PDNO) |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했다. | PDNS: 2.01 (1.11) PDNT: 2.55 (1.26) PDNO: 1.90 (1.11) |
| | 개인차원의 명령적 규범 (PIN: PINS, PINT, PINO) |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장기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 PINS: 3.13 (1.35) PINT: 3.26 (1.44) PINO: 2.81 (1.35) |
| | 사회차원의 기술적 규범 (SDN: SDNS, SDNT, SDNO) |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장기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 했다. | SDNS: 2.01 (1.03) SDNT: 2.37 (1.11) SDNO: 2.01 (1.05) |
| | 사회차원의 명령적 규범 (SIN: SINS, SINT, SINO) |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사람들이 장기기증 희망자로 서약(대화, 기증)하는 것을 찬성한다. | SINS: 2.97 (1.34) SINT: 2.96 (1.34) SINO: 2.68 (1.34) |

Note. BI = 행동의도; A = 태도; SN = 주관적 규범; SN_p =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 PDN_p =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기술적 규범; PIN_p =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명령적 규범; PDN =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 PIN =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 SDN = 사회 차원의 기술적 규범; SIN =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 각 약어 뒤에 붙는 S, T, O는 각각 Sign(서약), Talking(가족과의 대화), Organ donation(사후 장기기증)을 의미함. 예를 들어 BIS는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행동 의도, BIT는 장기기증에 대해 가족과 대화하려는 행동 의도, BIO는 사후 장기기증 의도를 나타냄.

족과 대화를 가졌습니까(PDNT_p)'(Cronbach's $\alpha = 0.75$), '아버지/어머니는 사후에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합니까(PDNO_p)'(Cronbach's $\alpha = 0.61$)의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명령적 규범은 '아버지/어머니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는 것을 찬성합니까(PINS_p)'(Cronbach's $\alpha = 0.96$), '아버지/어머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들과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찬성합니까(PINT_p)'(Cronbach's $\alpha = 0.95$), '아버지/어머니는 사람들이 사후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까(PINO_p)'(Cronbach's $\alpha = 0.94$)의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역시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했다(1=강한 부인, 7=강한 동의). 다만, 부모로부터의 개인적 기술적 규범(PDN_p)은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등록을 했으면 1, 하지 않았거나 등록 여부를 모를 경우는 0으로 더미코딩(dummy coding)했다. 구체적인 측정 변인과 문항, 기술통계 값은 <Table 1>과 같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복수의 항목(multiple item)을 사용했으나,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인 직장인들의 설문 피로도가 높을 것을 고려해 단일 항목(single item)으로 측정했다. 단일 항목을 이용한 측정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Bergkivist & Rossiter, 2007; Niemi, Carmines, & McIver, 1986). 버그키비스트와 로시터(Bergkivist & Rossiter, 2007)는 단일 항목을 이용한 측정과 복수 항목을 이용한 측정의 타당성을 비교했는데, 복수 항목과 단일 항목의 상관계수(coefficient r)가 각각 .80 vs. .74, .75 vs. .73, 으로 복수 항목이 약간 높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 중 변인을 가장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항목간 신뢰도(reliability)는 모두 적합하게 나왔다.

4. 연구 결과

1) 연구질문 1

연구질문 1을 통해 장기 기증 서약(S), 가족과의 대화(T), 사후 장기 기증(O)의 3가지 행위에 있어서 개인의 규범들(SN, PDN, PIN)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_p, PDN_p,

PIN_p)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Table 2>는 장기 기증 서약 행위에 있어서 개인의 규범들(SNS, PDNS, PINS)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S_p, PDNS_p, PINS_p)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 규범(SNS)과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S_p)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였다, $r = .66, p < .01$.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S)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S_p) 사이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였으며 $r = .40, p < .01$,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S)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S_p)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r = .55, p < .01$.

<Table 3>은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 개인의 규범들(SNT, PDNT, PINT)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T_p, PDNT_p, PINT_p)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 규범(SNT)과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T_p)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미하였다, $r = .60, p < .01$.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T)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T_p) 사이의 상관관계도 유의하였으며 $r = .39, p < .01$,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T)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T_p) 사이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r = .53, p < .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Norms and The Norms from Their Parents on Signing

| | SNS | PDNS | PINS | SNS_p | PDNS_p | PINS_p |
|--------|-------|-------|-------|-------|--------|--------|
| SNS | 1 | | | | | |
| PDNS | .53** | 1 | | | | |
| PINS | .65** | .49** | 1 | | | |
| SNS_p | .66** | .49** | .60** | 1 | | |
| PDNS_p | .24* | .40** | .22** | .30** | 1 | |
| PINS_p | .48** | .36** | .55** | .74** | .29** | 1 |

** $p < .01$, * $p < .05$

SNS: Subjective Norms on Signing

PDNS: Personal Descriptive Norms on Signing

PINS: Personal Injunctive Norms on Signing

SNS_p: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on Signing

PDNS_p :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on Signing

PINS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on Signing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Norms and The Norms from Their Parents on Family Discussion

| | SNT | PDNT | PINT | SNT_p | PDNT_p | PINT_p |
|--------|-------|-------|-------|-------|--------|--------|
| SNT | 1 | | | | | |
| PDNT | .59** | 1 | | | | |
| PINT | .62** | .64** | 1 | | | |
| SNT_p | .60** | .50** | .59** | 1 | | |
| PDNT_p | .27* | .39** | .28** | .36** | 1 | |
| PINT_p | .46** | .39** | .53** | .77** | .24** | 1 |

** $p < .01$, * $p < .05$

SNT: Subjective Norm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PDNT: Personal Descriptive Norm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PINT: Personal Injunctive Norm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SNT_p: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PDNT_p :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PINT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on Talking with their parents

<Table 4>는 사후 장기 기증에 있어서 개인의 규범들(SNO, PDNO, PINO)과 부모로부터의 규범들(SNO_p, PDNO_p, PINO_p)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 규범(SNO)과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O_p)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하였다, $r = .69$, $p < .01$. 개인의 명령적 규범(PINO)과 부모로부터의 개인의 명령적 규범(PINO_p) 사이의 상관 관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r = .49$, $p < .01$. 하지만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O)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O_p) 사이의 상관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사후 장기 기증을 할 가능성이(PDNO_p) 준거그룹의 다수의 사람들이 사후 장기 기증을 할 가능성(PDNO)보다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장기 기증에 대한 3가지 행위 -장기 기증 서약,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포괄적 의미의 규범들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형성된 규범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세 가지 행동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형성된 규범이 개인이 인지하는 포괄적인 규범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Norms and The Norms from Their Parents on Organ Donation

| | SNO | PDNO | PINO | SNO_p | PDNO_p | PINO_p |
|--------|-------|-------|-------|-------|--------|--------|
| SNO | 1 | | | | | |
| PDNO | .60** | 1 | | | | |
| PINO | .74** | .62** | 1 | | | |
| SNO_p | .69** | .54** | .68** | 1 | | |
| PDNO_p | .25* | .11 | .18* | .42** | 1 | |
| PINO_p | .51** | .37** | .49** | .75** | .32** | 1 |

** $p < .01$, * $p < .05$

SNO: Subjective Norms on Organ donation

PDNO: Personal Descriptive Norms on Organ donation

PINS: Personal Injunctive Norms on Organ donation

SNS_p: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on Organ donation

PDNS_p :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on Organ donation

PINS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on Organ donation

2) 연구질문 2, 연구질문 3

연구질문 2와 3은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요인들과 행동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일반적인 준거그룹으로부터의 규범과 구분되는 설명력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다른 요인들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3개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 회귀분석은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 두 번째 회귀분석은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세 번째 회귀분석은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 시행했다(n=218). 비필수적인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방지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독립 변수(예: 예측 변수)를 평균 중심(mean-centered)에 두었다(참조: Cohen et al., 2003).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의 경우 종속 변수가 예측 변수의 조합된 항목(product term)으로 회귀 되었다.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을 통해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주요 독립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을 첫 번째 블록에 포함시켰다.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에 의한 종속 변인의 추가적인 변화량을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블록에는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태도 X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과 같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들과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조합한 항목을 세 번째 블록에 넣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세 가지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부모로부터의 3개의 규범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분석 결과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는 첫 번째 블록의 예측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 148) = 80.13, p < .001, adj. R^2 = .62$. 즉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지각된 자기 통제가 강할수록 더 높은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을수록 장기 기증 서약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블록에서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넣었을 때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추가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3, 145) = 0.11, p = .95, R^2_{change} = .001$. 세 번째 블록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변화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9, 136) = 0.50, p = .88, R^2_{change} = .012$ (<Table 5-1> 참조).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대해서도 계획된 행동 이론의 예측 변인들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F(3, 148) = 83.45, p < .001, adj. R^2 = .64$. 하지만 두 번째 블록에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추가로 넣었을 때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F_{change}(3, 145) = 2.26, p = .08, R^2_{change} = .02$, 세 번째 블록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9, 132) = 0.46, p = .901, R^2_{change} = .01$ (<Table 5-3> 참조).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대해서 역시 계획된 행동 이론의 예측 변인들인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주관적 규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F(3, 149) = 55.42, p < .001, adj. R^2 = .52$. 하지만 두 번째 블록에서 3개의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넣었을 때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추가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3, 143) = 1.62, p = .188, R^2_{change} = .02$. 다만 세 번째 블록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량이 나타났는데 행위 의도에 대해 10%의 추가적인 변화량을 설명했다 $F_{change}(9, 134) = 4.10, p < .001, R^2_{change} = .10$. 이 상호작용의 조합들 중 7개의 양방향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2> 참조). 유의미하게 나타난 상호작용들에 대해서는 에이킨과 웨스트(Aiken & West, 1991)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 단순 회귀 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표준화 되지 않은 단순 경사(unstandardized simple slopes)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했다.

<Table 5-1>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Sig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52 | 0.07 | .45 | 8.07*** | .41 |
| SN | 0.35 | 0.07 | .31 | 5.07*** | .26 |
| PBC | 0.31 | 0.07 | .28 | 4.79*** | .24 |
| $F(3, 148) = 80.13, p < .001, adj.R^2 = .62$ | | | | | |
| Second Block | | | | | |
| SN_p | 0.06 | 0.11 | .05 | 0.61 | .31 |
| PDN_p | -0.27 | 0.39 | -.04 | -0.68 | -.04 |
| PIN_p | -0.03 | 0.08 | -.03 | -0.35 | -.02 |
| $F_{change}(3, 145) = 0.11, p = .95, R^2_{change} = .00$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_p | 0.03 | 0.08 | .03 | 0.41 | .02 |
| Attitudes × PDN_p | -0.28 | 0.46 | -.04 | -0.62 | -.03 |
| Attitudes × PIN_p | 0.17 | 0.06 | .02 | 0.28 | .02 |
| SN × SN_p | -0.03 | 0.09 | -.03 | -0.37 | -.02 |
| SN × PDN_p | 0.50 | 0.52 | .07 | 0.97 | .05 |
| SN × PIN_p | -0.03 | 0.06 | -.04 | -0.47 | -.02 |
| PBC × SN_p | -0.07 | 0.09 | -.07 | -0.74 | -.04 |
| PBC × PDN_p | -0.47 | 0.59 | -.06 | -0.79 | -.04 |
| PBC × PIN_p | 0.07 | 0.06 | .10 | 1.06 | .06 |
| $F_{change}(9, 136) = 0.50, p = .88, R^2_{change} = .01$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N_p :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PDN_p: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PIN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sr: semipartial correlation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가: 한국인의 장기 기증(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기증) 의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 분석

<Table 5-2>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Family Discussio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26 | 0.07 | .27 | 3.93*** | .22 |
| SN | 0.46 | 0.07 | .44 | 6.54*** | .37 |
| PBC | 0.19 | 0.07 | .18 | 2.50* | .14 |
| $F(3, 149) = 55.42, p < .001, adj.R^2 = .52$ | | | | | |
| Second Block | | | | | |
| SN_p | -0.05 | 0.10 | -.05 | 0.49 | -.03 |
| PDN_p | 0.43 | 0.27 | .10 | 1.62 | .09 |
| PIN_p | 0.12 | 0.09 | .13 | 1.41 | .08 |
| $F_{change}(3, 143) = 1.62, p = .188, R^2_{change} = .02$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_p | -0.03 | 0.06 | -.05 | -0.55 | -.03 |
| Attitudes × PDN_p | 0.16 | 0.19 | .06 | 0.85 | .04 |
| Attitudes × PIN_p | 0.15 | 0.05 | .27 | 2.86** | .15 |
| SN × SN_p | -0.24 | 0.07 | -.38 | -3.70*** | -.19 |
| SN × PDN_p | 0.67 | 0.20 | .25 | 3.31** | .17 |
| SN × PIN_p | 0.13 | 0.06 | .22 | 2.18* | .11 |
| PBC × SN_p | 0.19 | 0.07 | .31 | 2.73** | .14 |
| PBC × PDN_p | -0.76 | 0.22 | -.31 | -3.48** | -.18 |
| PBC × PIN_p | -0.17 | 0.07 | -.28 | -2.47* | -.13 |
| $F_{change}(9, 134) = 4.10, p < .001, R^2_{change} = .098$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N_p :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PDN_p: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PIN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sr: semipartial correlation

<Table 5-3>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Organ donatio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63 | 0.07 | .51 | 9.12*** | .47 |
| SN | 0.21 | 0.07 | .18 | 2.92** | .15 |
| PBC | 0.30 | 0.06 | .31 | 4.99*** | .26 |
| $F(3, 148) = 83.45, p < .001, adj.R^2 = .64$ | | | | | |
| Second Block | | | | | |
| SN_p | 0.07 | 0.13 | .06 | 0.56 | .03 |
| PDN_p | -1.30 | 0.46 | -.02 | -0.29 | -.02 |
| PIN_p | 0.07 | 0.10 | .07 | 0.70 | .04 |
| $F_{change}(3, 145) = 2.26, p = .08, R^2_{change} = .02$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_p | 0.75 | 0.10 | .08 | 0.74 | .05 |
| Attitudes × PDN_p | -0.45 | 0.54 | -.07 | -0.83 | -.05 |
| Attitudes × PIN_p | 0.01 | 0.08 | .02 | 0.18 | .01 |
| SN × SN_p | -0.01 | 0.11 | -.01 | -0.05 | -.00 |
| SN × PDN_p | 0.43 | 0.63 | .10 | 0.69 | -.04 |
| SN × PIN_p | 0.01 | 0.08 | .02 | 0.16 | .01 |
| PBC × SN_p | -0.00 | 0.11 | -.00 | -0.02 | -.00 |
| PBC × PDN_p | -0.25 | 0.63 | -.06 | -0.40 | -.02 |
| PBC × PIN_p | -0.06 | 0.08 | -.10 | -0.83 | -.05 |
| $F_{change}(9, 132) = 0.46, p = .90, R^2_{change} = .01$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N_p : Subjective Norms from parents

PDN_p: Personal Descriptive Norms from parents

PIN_p: Personal Injunctive Norms from parents

sr: semipartial correlation

<Table 6>은 조절 변인의 3개의 포인트(1SD below, Mean, 1SD above)에서 기준 변수에 대한 예측 변수의 단순 기울기를 보여준다. 태도(ATT)와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는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태도가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낮은 그룹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가족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으면 본인의 태도가 높더라도 가족과의 대화 의도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규범(SN)과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는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에 의해 조절되었다. 먼저, 개인의 주관적 규범(SN)은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이 낮은 그룹에서는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내가 장기 기증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준거그룹이 가족과의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대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과 명령적 규범(PIN_p)은

<Table 6> Summary of Unstandardized Simple Slopes for Intention to Talk with Family

| Criterion variable | Simple Slopes at Three Points of Moderators | | | |
|-------------------------------|---|--------|-----------|--------|
| | 1SD below | Mean | 1SD above | |
| Intention to talk with family | | | | |
| Predictors | Moderators | | | |
| ATT | PIN_p | .09 | .35*** | .60*** |
| SN | SN_p | .89*** | .52*** | .15 |
| SN | PDN_p | .28** | .52*** | .76*** |
| SN | PIN_p | .31* | .52*** | .73*** |
| PBC | SN_p | -.24 | .05 | .33* |
| PBC | PDN_p | .32** | .05 | -.23 |
| PBC | PIN_p | .33* | .05 | -.24 |

* $p < .05$, ** $p < .01$, *** $p < .001$

Note. Due to different sizes of standard errors, a smaller sized slope can have lower p -value than a larger sized slope, as indicated with the different numbers of asterisks attached to them.

모두 높은 그룹에서 낮은 그룹보다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기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규범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자기 통제(PBC)와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 역시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에 의해 조절되었다. 먼저, 지각된 자기 통제(PBC)는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이 높은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과 명령적 규범(PIN_p)의 경우 낮은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연구질문 4, 연구질문 5

연구질문 4와 5는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요인들과 행동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다른 유형의 규범들 중 어떤 유형의 규범이 행동 의도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범이 행동 의도에 대한 태도, 지각된 자기 통제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규범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회귀 분석을 시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들 중 하나이면서 규범 차원들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의 주관적 규범의 효과가 다른 4가지 규범 차원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와 주관적 규범이 다른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들(태도, PBC)의 효과를 조절하는지 여부를 모두 고려했다. 첫 번째 회귀 분석은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 두 번째 회귀 분석은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세 번째 회귀 분석은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 시행했다(n=218). 비필수적인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방지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독립 변수(예: 예측 변수)를 평균 중심(mean-centered)에 두었다(참조: Cohen et al., 2003).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의 경우 종속 변수가 예측 변수의 조합된 항목(product term)으로 회귀 되었다.

위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을 통해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주요 독립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을 첫 번째 블록에 포함시켰다. 다른 4개 유형의 규범에 의한 종속 변인의 추가적인 변화량을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블록에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 사회 차원의 기술적 규범(SDN),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태도 X 주관적 규

범과 같이 조합된 항목을 세 번째 블록에 넣어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두 가지 변인(태도, 지각된 자기 통제)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주관적 규범을 포함한 5개 유형의 규범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상호 작용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2가지 요인(태도, 지각된 자기 통제)과 주관적 규범을 포함한 5가지 규범 유형간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규범이 포함된 계획된 행동 이론의 3가지 요인과 나머지 4개의 규범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규범을 포함한 다른 상호작용과 2차보다 높은 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그것이 본 연구의 이론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해서 첫 번째 블록의 예측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 199) = 131.42, p < .001, adj. R^2 = .66$. 행동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 통제,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Table 7-1> 참조). 하지만 두 번째 블록에서 4개 유형의 규범을 넣었을 때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추가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4, 195) = 0.55, p = .697, R^2_{change} = .004$. 세 번째 블록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변화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14, 181) = 0.59, p = .868, R^2_{change} = .015$.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첫 번째 블록의 예측 변인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3, 188) = 137.91, p < .001, adj. R^2 = .68$ (Table 7-3 참조). 두 번째 블록에서 4개 유형의 규범을 넣었을 때 이것이 행위 의도에 유의미한 변화량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F_{change}(4, 184) = 2.99, p = .02, R^2_{change} = .019$. 하지만 4개의 규범 유형 중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만이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Table 7-3> 참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록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변화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F_{change}(14, 170) = 0.59, p = .869, R^2_{change} = .014$.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Table 7-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의 대화의도에 대한 예측 변수들은 첫 번째 블록 $F(3, 191) = 81.63, p < .001, adj. R^2 = .55$, 두 번째 블록 $F_{change}(4, 187) = 4.34, p = .002, R^2_{change} = .037$, 세 번째 블록 $F_{change}(14, 173) = 1.86, p = .034, R^2_{change} = .052$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먼저 가족과 얘기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을수록, 지각된 자기 통제와 규범이 높을수록 장기 기증에 대해 가족과 얘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블록의 예측 변수들 중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만이 행동 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장기 기증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도 가족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

<Table 7-1>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Sig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51 | 0.05 | .44 | 9.51*** | .39 |
| SN | 0.37 | 0.06 | .31 | 6.06*** | .25 |
| PBC | 0.30 | 0.55 | .28 | 5.48*** | .23 |
| $F(3, 199) = 131.42, p < .001, adj.R^2 = .66$ | | | | | |
| Second Block | | | | | |
| PDN | 0.07 | 0.08 | .05 | 0.91 | .04 |
| PIN | 0.08 | 0.08 | .07 | 1.07 | .04 |
| SDN | -0.08 | 0.09 | -.05 | -0.89 | -.04 |
| SIN | 0.01 | 0.07 | .01 | 0.14 | .01 |
| $F_{change}(4, 195) = 0.55, p = .697, R^2_{change} = .00$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 | 0.01 | 0.07 | .07 | 0.15 | .01 |
| Attitudes × PDN | 0.09 | 0.08 | .40 | 1.21 | .05 |
| Attitudes × PIN | 0.00 | 0.07 | .00 | 0.00 | .00 |
| Attitudes × SDN | -0.10 | 0.08 | -.37 | -1.19 | -.05 |
| Attitudes × SIN | -0.01 | 0.06 | -.04 | -0.12 | -.01 |
| PBC × SN | 0.01 | 0.05 | .06 | 0.24 | .01 |
| PBC × PDN | -0.04 | 0.06 | -.15 | -0.65 | -.03 |
| PBC × PIN | 0.02 | 0.06 | .11 | 0.40 | .02 |
| PBC × SDN | 0.14 | 0.08 | .46 | 1.80 | .08 |
| PBC × SIN | -0.06 | 0.06 | -.26 | -1.03 | -.04 |
| SN × PDN | -0.13 | 0.08 | -.46 | -1.73 | -.07 |
| SN × PIN | 0.05 | 0.06 | .22 | 0.78 | .03 |
| SN × SDN | 0.03 | 0.09 | .11 | 0.38 | .02 |
| SN × SIN | -0.03 | 0.06 | -.11 | 0.40 | -.02 |
| $F_{change}(14, 181) = 0.59, p = .868, R^2_{change} = .02$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DN: Personal Descriptive Norms

PIN: Personal Injunctive Norms

SDN: Social Descriptive Norms

SIN: Social Injunctive Norms

sr: semipartial correlation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가: 한국인의 장기 기증(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기증) 의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 분석

<Table 7-2>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Family Discussio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22 | 0.06 | .22 | 3.81*** | .18 |
| SN | 0.28 | 0.07 | .27 | 4.23*** | .20 |
| PBC | 0.42 | 0.06 | .41 | 6.67*** | .32 |
| $F(3, 191) = 81.63, p < .001, adj.R^2 = .555$ | | | | | |
| Second Block | | | | | |
| PDN | 0.23 | 0.08 | .19 | 2.80** | .13 |
| PIN | 0.15 | 0.08 | .14 | 1.81 | .08 |
| SDN | -.05 | 0.09 | -.04 | -0.59 | -.03 |
| SIN | -.05 | 0.08 | -.04 | -0.61 | -.03 |
| $F_{change}(4, 187) = 4.34, p = .002, R^2_{change} = .037$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 | 0.02 | 0.06 | .03 | 0.27 | .02 |
| Attitudes × PDN | 0.06 | 0.08 | .07 | 0.74 | .03 |
| Attitudes × PIN | 0.06 | 0.07 | .08 | 0.86 | .04 |
| Attitudes × SDN | -0.02 | 0.09 | -.02 | -0.19 | -.01 |
| Attitudes × SIN | -0.00 | 0.07 | -.00 | -0.01 | .00 |
| PBC × SN | 0.11 | 0.05 | .20 | 2.31* | .10 |
| PBC × PDN | 0.11 | 0.06 | .18 | 1.69 | .08 |
| PBC × PIN | -0.20 | 0.08 | -.33 | -2.47* | -.11 |
| PBC × SDN | -0.04 | 0.07 | -.05 | -0.61 | -.03 |
| PBC × SIN | 0.09 | 0.07 | .14 | 1.31 | .06 |
| SN × PDN | -0.16 | 0.06 | -.26 | -2.47* | -.11 |
| SN × PIN | 0.05 | 0.08 | .09 | 0.66 | .03 |
| SN × SDN | 0.08 | 0.07 | .10 | 1.06 | .05 |
| SN × SIN | -0.15 | 0.07 | -.23 | -1.91* | -.10 |
| $F_{change}(14, 173) = 1.86, p = .034, R^2_{change} = .052$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DN: Personal Descriptive Norms

PIN: Personal Injunctive Norms

SDN: Social Descriptive Norms

SIN: Social Injunctive Norms

sr: semipartial correlation

<Table 7-3> Regression Results for Intention to Organ donation

| | <i>B</i> | <i>SE</i> | β | <i>t</i> | <i>sr</i> |
|--|----------|-----------|---------|----------|-----------|
| First Block | | | | | |
| Attitudes | 0.65 | 0.06 | .51 | 11.13*** | .45 |
| SN | 0.24 | 0.06 | .19 | 3.86*** | .16 |
| PBC | 0.33 | 0.05 | .32 | 6.21*** | .25 |
| $F(3, 188) = 137.91, p < .001, adj.R^2 = .68$ | | | | | |
| Second Block | | | | | |
| PDN | -0.01 | 0.11 | -.01 | -0.12 | -.01 |
| PIN | 0.22 | 0.09 | .16 | 2.46* | .10 |
| SDN | -0.18 | 0.12 | -.10 | -1.52 | -.06 |
| SIN | -0.10 | 0.07 | -.07 | -1.37 | -.06 |
| $F_{change}(4, 184) = 2.99, p = .02, R^2_{change} = .02$ | | | | | |
| Third Block | | | | | |
| Attitudes × SN | 0.04 | 0.07 | .21 | 0.49 | .20 |
| Attitudes × PDN | -0.04 | 0.11 | -.15 | -0.35 | -.01 |
| Attitudes × PIN | 0.00 | 0.06 | .00 | 0.00 | .00 |
| Attitudes × SDN | 0.02 | 0.04 | .07 | 0.18 | .01 |
| Attitudes × SIN | -0.11 | 0.08 | -.56 | -1.85 | -.08 |
| PBC × SN | 0.03 | 0.05 | .14 | 0.62 | .03 |
| PBC × PDN | -0.04 | 0.08 | -.15 | -0.47 | -.02 |
| PBC × PIN | -0.07 | 0.05 | -.34 | -1.25 | -.05 |
| PBC × SDN | 0.04 | 0.09 | .15 | 0.52 | .02 |
| PBC × SIN | 0.03 | 0.06 | .14 | 0.63 | .03 |
| SN × PDN | -0.03 | 0.10 | -.12 | -0.34 | -.01 |
| SN × PIN | -0.00 | 0.06 | -.01 | -0.02 | -.00 |
| SN × SDN | 0.24 | 0.10 | .08 | 0.24 | .01 |
| SN × SIN | 0.01 | 0.06 | .04 | 0.18 | .01 |
| $F_{change}(14, 170) = 0.59, p = .869, R^2_{change} = .01$ | | | | | |

* $p < .05$, ** $p < .01$, *** $p < .001$

SN: Subjective Norms

PBC: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DN: Personal Descriptive Norms

PIN: Personal Injunctive Norms

SDN: Social Descriptive Norms

SIN: Social Injunctive Norms

sr: semipartial correlation

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세 번째 블록에서는 행위 의도에 대해 5%의 추가적인 변화량을 설명했다. 이 상호작용의 조합들 중 4개의 양방향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상호작용들에 대해서는 에이킨과 웨스트(Aiken & West, 1991)의 선행 연구를 참고해 단순 회귀 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했으며 표준화 되지 않은 단순 경사(unstandardized simple slopes)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측정했다.

<Table 8>은 조절 변인의 3개의 포인트에서 기준 변수에 대한 예측 변수의 단순 기울기를 보여준다. 지각된 자기 통제(PBC)와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는 주관적 규범(SN)과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관적 규범이 낮은 그룹에서는 지각된 자기 통제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주관적 규범이 높은 그룹에서는 이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준거그룹이 내가 장기 기증에 대해 가족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각된 자기 통제가 행위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각된 자기 통제가 대화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이 낮은 그룹에서는 지각된 자기 통제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높은 그룹에서는 이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규범(SN)과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과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과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이 낮은 그룹에서만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Table 8> Summary of Unstandardized Simple Slopes

| Criterion variable | Simple Slopes at Three Points of Moderators | | | | |
|-------------------------------|---|------------|---------|-----------|---------|
| | | 1SD below | Mean | 1SD above | |
| Intention to talk with family | Predictors | Moderators | | | |
| | PBC | SN | 0.01 | 0.16* | 0.32*** |
| | PBC | PIN | 0.45** | 0.16* | - 0.13 |
| | SN | PDN | 0.46*** | 0.27** | 0.07 |
| | SN | SIN | 0.47*** | 0.27** | 0.06 |

* $p < .05$, ** $p < .01$, *** $p < .001$

Note. Due to different sizes of standard errors, a smaller sized slope can have lower p -value than a larger sized slope, as indicated with the different numbers of asterisks attached to them.

높은 그룹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기 기증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규범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장기 기증에 있어서 부모의 생각이 중요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제도적 특성에 주목하며, 계획된 행동 이론의 변인 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SN) 외에 부모로부터의 규범(SN_p, PDN_p, PIN_p)을 새로운 변인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포괄적 의미의 주관적 규범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해 주관적 규범과 구분되는 설명력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나아가 규범을 사회 규범적 접근(SNA)으로 확대해 각각의 규범 요인들이 갖는 세부적인 영향력 또한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장기 기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의 요인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장기 기증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개인이 인지하는 포괄적 의미의 규범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장기 기증 서약,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 등 장기 기증과 관련된 행위에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개의 규범 유형과 각각에 대한 부모의 생각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는데, 주관적 규범(SN)은 부모가 내가 장기 기증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SN_p), 개인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은 부모 자신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는지 여부(PDN_p), 개인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은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PIN_p)와 각각 매칭했다. 분석 결과 구체적인 규범 유형들과 각각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규범 간의 상관 관계도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만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한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과 부모로부터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_p) 간의 상관 관계는 유의하지 않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실제 부모 두 사람이 장기 기증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수의 준거그룹의 장기 기증 의도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구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생각의 일치 정도를 보기 위해 동일 문항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이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컨대 어머니가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측정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일반적이고 포괄적 의미의 주관적 규범(SN)과 구분되는 설명력을 갖는지, 그리고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요인들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기 기증 서약, 사후 장기 기증,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 등 세 개 행위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이 설명하는 것 외에 추가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장기 기증 서약 및 사후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들과 행위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실제 부모의 신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응답자가 지각한(perceived) 규범이라는 점과도 관련될 수 있다. 즉, 개인의 규범적 인식이 실제 부모의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 응답자가 규범을 인식하는 데에 부모의 규범이 투사(projection)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포괄적 의미에서 주관적 규범 내에 이미 상당 부분 포함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규범이 별도의 추가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모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미라기보다, 지각된 규범의 구조적 특성상 두 규범이 경험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개인들이 부모의 생각을 장기 기증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형성하는 데 이미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의 규범과 개인의 주관적 규범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 외에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관적 규범과 장기 기증 행위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준거그룹으로부터의 주관적 규범이 부모로부터의 규범들보다 장기 기증 서약과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생각과 관계 없이 준거그룹에 생각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규범이 장기 기증 행위에 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들과 행위를 조절하는 효과들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SN)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SN_p)이 낮은 그룹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높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내가 장기 기증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준거그룹이 가족과의 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대화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로부

터의 규범들(SN_p, PDN_p, PIN_p)과 포괄적 의미의 규범들(SN, PDN, PIN) 간의 상관관계 중에서도 부모로부터의 주관적 규범과 포괄적 의미의 주관적 규범 간의 상관관계가 특히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준거그룹에서 부모의 생각이 이미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부모 외의 준거그룹도 장기 기증 행동 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참가자가 30, 40 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 외에 배우자와 같은 다른 가족이나, 이성 친구 등 또 다른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규범을 5개의 차원으로 개념화한 박과 스미스(Park & Smith, 2007)의 연구를 참고해, 규범의 각 유형들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다른 요인들과 행동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 효과를 검증했다. 먼저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대해서는 TPB의 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4개의 규범 유형들의 행동 의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개인의 사후 장기 기증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이 행동 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장기 기증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도 가족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규범 유형들의 조절 효과는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지각된 자기 통제(PBC)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규범(SN)과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에 의해 조절되었다. 또한 주관적 규범(SN)과 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과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에 의해 조절되었다. 장기 기증 서약이나 사후 장기 기증 행위에 있어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범의 4개 차원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 차원의 명령적 규범(SIN)이나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의 준거그룹이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기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다수의 생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적 생각이나 주관적 규범과 같은 나에게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장기 기증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

모의 생각으로부터 형성된 규범을 일반적인 주관적 규범과 분리하고, 부모의 생각이 개인이 인지하는 포괄적 의미의 규범에 반영되어 있음을 검증한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규범(SN),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 개인 차원의 명령적 규범(PIN)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규범 안에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실제로 부모의 생각이나 입장을 개인이 인지하는 규범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현실적인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괄적인 의미의 규범을 측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장기 기증 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문제는 실제 개인의 장기 기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의견과 규범의 준거가 되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규범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준거그룹은 장기 기증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은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 주관적 규범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장기 기증 행위 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 기증에 있어서는 부모가 나의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같은 문화적 요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는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기 기증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더욱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이 생각하는 부모의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측정함으로써 포괄적 의미의 규범과 부모로부터의 규범 간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해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들 외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포괄적 의미의 주관적 규범에 부모로부터의 규범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측정할 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측정하지 않아도 규범 안에 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모로부터의 규범을 측정할 때 응답자가 지각하는 규범(perceived norm)이 실제 부모의 신념이나 행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장기 기증과 같이 일상적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주제에서는 부모의 실제 입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이 일상적 상호작용이나 암묵적 신호를 바탕으로 규범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apinski & Rim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규범 이론에서는 지각된 규범이 실제 규범과 구별되더라도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

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의 기대나 태도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행동 의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Rimal & Re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 규범은 실제 규범과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규범적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 및 실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실제 규범과 지각된 규범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기증과 관련된 규범적 정보를 가족 간에 보다 명확히 공유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이는 개인이 보다 정확한 규범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영향력과 가족의 역할이 장기 기증 결정 과정에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범 명료화 과정은 장기 기증 의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지원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형성된 주관적 규범이 낮을 때에 포괄적 의미의 주관적 규범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주관적 규범이 행위 의도를 결정하는 데 부모로부터의 규범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장기 기증 행동 의도에 부모의 생각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 예측한 것과 달리,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준거그룹의 생각, 즉 내가 받아들이는 사회적 규범이 행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 기증에 우호적인 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개인의 장기 기증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기 기증과 관련된 행위를 장기 기증 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의 3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행위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규범적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들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예측 변수들이 행동의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Armitage, Conner, & Norman, 1999).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의 행동 의도와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의 의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나 혼자 하는 일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Trafimow & Fishbein, 1994).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 중 하나인 주관적 규범은 3가지 행위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부모로부터의 규범들과 사회 규범적 접근(SNA)의 4가지 규범들의 조절 효과는 행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규범의 조절 효과는 장기 기증 서약과 사후 장기 기증 행위에 있

어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7개의 유의미한 패턴들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 규범적 접근(SNA)의 4가지 규범 유형들 역시 가족과의 대화에서만 4개의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장기 기증 서약이 매우 개인적인 행위인 반면 가족과의 대화는 집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다양한 규범 요인들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행위가 개인적인 것인지 사회적인 것인지에 따라 규범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Park & Smith, 2007). 두번째로,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부모가 직접적인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간접적으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에 관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 부모의 개인차원의 명령적 규범(PIN_p)이 높은 그룹에서는 태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낮은 그룹에서는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가 장기 기증 관련 대화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 기증에 대한 대화를 하고자 하는 개인의 태도를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장기 기증 서약이나 사후 장기 기증과 같은 직접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생각과 관계없이 개인의 태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부모의 생각이 이러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가 단순히 대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증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Exley, White, Martin, 2002; Febrero et al., 2018; Jacoby & Jaccard, 2010; Morgan, 2004). 가족과의 대화는 장기 기증 서약, 사후 장기 기증 등 다른 장기 기증 관련 행위에 비해 직접적이지 않지만, 결국 가족과의 대화가 개인의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장기 기증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 사회적 금기처럼 여겨지고 이에 대해 꺼려하는 경향이 높아(Long, Sque, and Payne, 2006),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행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 세대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셋째, 본 연구는 규범의 5개 유형을 미국의 대학생들을 검증한 선행 연구(Park & Smith, 2007)와 비교해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장기 기증의 3가지 행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의 차이를 설명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이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있어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자기 통제 등 TPB의 3가지 요인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모두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Smith). 박과 스미스(Park & Smith, 2007)는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이 낮은 개인들의 경우 태도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이것이 높을수록 태도와 행위 의도와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내가 장기 기증 서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 서약을 많이 했다면 나도 장기 기증 서약을 할 것이라는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규범의 유형들이 장기 기증 서약에 대한 TPB의 요인들과 행동 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장기 기증 서약자 수가 미국에 비해 매우 적고 아직 사회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응답자 중 부모님이 장기 기증 서약에 등록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뿐 이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PDN이 주요한 규범적 영향력을 가지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즉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경우 집합주의적인 문화 특성 때문에 규범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장기 기증의 경우 낮은 참여도와 이슈성으로 인해 규범들의 의미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난 선행 연구들(민지원·차희원, 2017; 유성신 외, 2015; 정재선, 2013; 차동필 2013; Hausenblas, Carron, & Mack, 1997)과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SN)의 영향력이 장기 기증 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 장기 기증 행위 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특히 장기 기증 서약에 있어서 다른 4개의 규범 유형들이 직접적, 간접적 효과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관적 규범이 다른 규범 유형들에 비해 개인의 행위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집합주의적인 특성상 나에 대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과의 결과 차이를 고려할 때 장기 기증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은 지속적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30,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세대가 더 오랜 사회 활동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도 지닌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규범이 가족과의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장기 기증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 세대의 인식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 안내 자료를 가족 단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부모 규범의 긍정적 조절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규범(SN)이 가족 규범보다 더 일관된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은, 장기 기증에 대한 전사회적 긍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개인의 의도 향상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이는 공공 캠페인에서 ‘우리 사회가 장기 기증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유명인의 기증 사례나 등록 참여 챌린지 등 사회적 확산 메시지를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신체 훼손 금기나 죽음 회피와 같은 독특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 기증 관련 대화가 어렵게 여겨지는데,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고 죽음·기증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몇 가지 한계 또한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요인과, 규범 유형들, 부모의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단일 항목을 사용해 측정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인 직장인들의 특성상 설문 응답률이 낮고, 다수의 문항에 대한 피로도도 인해 결측이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나 이로 인한 한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두 번째로 부모 각각의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지 않고 개인이 생각하는 부모의 의견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부모의 생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참가자가 인식하는 부모로부터의 규범에는 부모의 세대, 부모와의 동거 여부, 혼인 여부 등 가족 환경의 차이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의 차이, 가족 구조 및 상호작용 빈도 등의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거나 비교함으로써 부모 규범의 형성 과정과 영향력을 더 맥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장기 기증 서약자 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적다보니 개인 차원의 기술적 규범(PDN), 부모의 장기 기증 서약 여부에 대한 변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경자 · 김상희 (2004).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대한이식학회지>, 18권 1호, 81-86.
- 강승지 (2023년 9월 12일). MZ세대, 장기기증 희망 쏘아올렸다...‘기증서약’ 43%가 2030.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medical/5167577>
- 구윤희 · 안지수 · 노기영 (2020).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TPB)과 규범활성화 모형(NAM)의 통합 적용. <한국언론학보>, 64권 3호, 47-76.
- 김혜인 · 차희원 (2010). 사회 자본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후 장기 기증 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 이론의 적용 및 확장. <한국언론학보>, 54권 6호, 173-198.
- 민지원 · 차희원 (2017). 공포와 사회규범이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61권 1호, 217-250.
- 보건복지부 (2021).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 계획안 2021-2025. <https://documentcloud.adobe.com/link/review?uri=urn:aaid:scds:US:05e08d19-3002-4f59-8027-76d98ceefddd3>
- 보건복지부 (2025). 2023년도 장기 등 이식 및 인체조직 기증 통계연보.
- 손영근 · 이병관 (2012).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사회 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127-161.
- 왕혜숙 · 양현아 (2016). 한국의 장기이식법의 가족주의적 기반. <법과사회>, 52, 143-180.
- 이상목 (2005). 한국인의 문화적 관점과 장기이식의 윤리. <윤리교육연구>, 8, 241-259.
- 이수인 · 유지영 · 임연옥 (2019). 유교적 특성이 뇌사자 장기 기증 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20권 3호, 103-128.
- 유성신 · 박현선 · 민귀홍 · 하영희 · 김여정 (2015). 장기기증 서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한국광고홍보학보>, 17권 2호, 43-70.
- 정재선 (2013). 세대와 흡연특성이 금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8, 1-39.
- 조광덕 (2017). 종교와 종교성이 뇌사 시 장기기증의사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31권 1호, 129-164.
- 조원현 (2018). 국내 장기기증 현황과 기증 감소의 해결 방안. <대한이식학회지>, 32권 3호, 38-48.
- 차동필 (2010). 장기기증 유형별 기증 희망등록의도 및 가족 동의 획득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광고연구>, 87호, 7-40.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가: 한국인의 장기 기증(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기증) 의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 분석

-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s to behavior* (pp. 11-39). Heidelberg, Germany: Springer.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jzen, I. (2006).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Retrieved December 10, 2006, from <http://www.people.umass.edu/ajzen/pdf/tpb.measurement>
- Ajzen, I., & Fishbein, M. (1975). A Bayesian analysis of attribution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82(2), 261.
- Armitage, C. J., & Conne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 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71~499).
- Bergkvist, L. & Rossiter, J. R. (2007). The predictive validity of multiple-item versus single-item measures of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4, 175-184.
- Braun, K., & Nichols, R. (1996). *Cultural Issues in Death and Dying*.
- Cialdini, R. B., Kallgren, C. A., & Reno, R. R. (1991).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A theoretical refinement and reevaluation of the role of norms in human behavior.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4, pp. 201-234). Academic Press.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EA.
- Exley, M., White, N., & Martin, J. H. (2002). Why families say no to organ donation. *Critical Care Nurse*, 22(6), 44-51.
- Febrero, B., Almela, J., Febrero, R., Ríos, A., González, M. R., Gil, P. J., & Parrilla, P. (2018, March). Importance for the elderly of discussion in the family and society about attitude toward organ donation. In *Transplantation proceedings* (Vol. 50, No. 2, pp. 523-525). Elsevier.
- Grusec, J. E., & Hastings, P. D. (Eds.). (2014).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Guilford Publications.
- Hausenblas, H. A., Carron, A. V., & Mack, D. E.(1997). Applicati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ur to exercise behaviour: A meta-analysi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 36-51.
- IRODaT (2022). 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2021. <https://www.irodat.org/>
- Jacoby, L., & Jaccard, J. (2010). Perceived support among families deciding about organ donation for their loved ones: donor vs nondonor next of kin.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19(5), e52-e61.
- Kopfman, J. E., & Smith, S. W. (1996). Understanding the audiences of a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 A discriminant analysis of potential organ donors based on intent to donat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4, 33-49.
- Lapinski, M. K., & Rimal, R. N. (2005). An explication of social norms. *Communication Theory*, 15(2),

127-147.

- Long, T., Sque, M., & Payne, S. (2006). Information sharing: its impact on donor and nondonor families' experiences in the hospital. *Progress in Transplantation*, 16(2), 144-149.
- Luberda, K. (2017). How modifiable factors influence parental decision-making about organ donation. *Nursing Children & Young People*, 29(9).
- Martinez-Escudero, J. A., Villarejo, S., Garcia, O. F., & Garcia, F. (2020). Parental socialization and its impact across the lifespan. *Behavioral Sciences*, 10(6), 101.
- Morgan, S. E. (2004). The power of talk: African Americans'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about organ donation and its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donate orga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 112-124.
- Niemi, R., Carmines, E., & McIver, J. P. (1986). The impact of scale length on reliability and validity. A clarification of some misconceptions. *Quality and Quantity*, 20, 371-376.
- Park, H. S., Smith, S. W. (2007). Distinctiveness and Influence of Subjective Norms, Person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and Societal Descriptive and Injunctive Norms on Behavioral Intent: A Case of Two Behaviors Critical to Organ Don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3(2), 194-218.
DOI: 10.1111/j.1468-2958.2007.00296.x
- Park, H. S., Smith, S. W., & Yun, D. (2009). Ethnic differences in intention to enroll in a state organ donor registry and intention to talk with family about organ donation. *Health Communication*, 24(7), 647-659. DOI: 10.1080/10410230903242259
- Park, H. S., Yun, D., Smith, S. W., & Morrison, K. (201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willingness to engage in family discussion about organ donation in the United States.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2(2), 61-71.
- Park, H. S., Yun, D., Oh, J. Y., & Song, C.-I. (2015). Cross-cultural comparison of USA and Korea in estimation of organ donatio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3(10), 1585-1592.
DOI: 10.2224/sbp.2015.43.10.1585
- Park, H. S., Ryu, J. Y., & Oh, Y. J. (2020). Comparisons of Koreans, Kore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regarding deceased organ do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13-14), 2286-2295. DOI: 10.1177/1359105318793710
- Rios, A., Lopez-Navas, A., Lopez-Lopez, A., Gomez, F. J., Iriarte, J., Herruzo, R., ... & Parrilla, P. (2019). A multicentre and stratified study of the attitude of medical students towards organ donation in Spain. *Ethnicity & Health*, 24(4), 443-461.
- Rivis, A., & Sheeran, P. (2003). Descriptive norms as an additional predicto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Current Psychology*, 22(3), 218-233.
- Rodrigue, J. R., Cornell, D. L., & Howard, R. (2006). Organ donation decision: comparison of donor and

부모의 생각이 개인의 규범을 구성하는가: 한국인의 장기 기증(서약, 가족과의 대화, 사후기증) 의도에 대한 규범의 영향력 분석

nondono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6(1), 190-198.

Skowronski, J. J. (1997). On the psychology of organ donation: Attitudinal and situa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willingness to be an organ donor.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4), 427-456.

Trafimow, D., & Fishbein, M. (1994b). The moderating effect of behavior type on the subjective norm-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755-763.

Yun, D., & Park, H. S. (2010). Culture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 donation intentions in Americans and Koreans.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4, 130-137. <http://doi.org/dkm4kt>

최초 투고일: 2025년 10월 07일

논문 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2월 15일

Do Parental Beliefs Constitute Individual Norms?: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Norms on
Koreans' Intention toward Organ Donation in Korea

Ka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Media and Communi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Doshik Yun**

CEO, Cheonghwa Industrial Co., Ltd.

Hee Sun Park***

Professor, College of Media and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orms operate in organ donation behaviors. To this end, it analyzes normative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s related to three key behaviors: organ donation registration,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and posthumous organ donation.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s shaped by parental beliefs and the subjective norms proposed by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was examined.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norms across all behavioral domains, suggesting that parental norms function as part of broader subjective norms. In addition, parental norm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organ donation intentions overall; however,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ith theory of planned behavior variables were found for intentions to communicate with family members. Furthermore, to clarify the distinct influence of different normative dimension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ive types of norms on organ donation intentions were analyze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personal injunctive norms significantly influenced intentions toward posthumous organ donation, while personal descriptive nor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s to communicate with family memb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Organ donati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subjective norms, injunctive norms, descriptive norms

* kykim@gwnu.ac.kr, First Author

** yundoshi@naver.com

*** heesunpark@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